

〈창란호연〉과 〈완월회맹연〉 비교 연구

- 가정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

한길연*

I. 서 론

〈창란호연〉과 〈완월회맹연〉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대하소설이 강한 유형성을 지닌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두 작품은 특히 긴밀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소인형 인물의 장인과 군자형 인물의 사위가 대립하는 가운데, 장인이 정치적 위기에 처한 시돈 집안을 배신하다가 사돈 집안이 영화롭게 복귀하자 비굴한 술책으로 사위의 용서를 받으려는 양상, 즉 소인형 장인과 군자형 사위가 갈등하는 翁婿대립담이 흡사하게 전개된다.

그럼에도 이 두 소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으로 본다면 두 작품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소한 차이점들은 단지 부분적인 차이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하게 될 때 각각의 작품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두 작품의 차이는 문헌기록 혹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창란호연〉에 관해 살펴보면, 이상택이 “조초부터 설화 우읍고 쏘 미묘한 고로 민멸호를 앗겨 특별이 전를 지어 후세인이 보기울 힘써 후세의 전호노라”¹⁾라는 필사후기를 통해 흥미성과 기이성에 이끌려 지어진 작품임

* 아주대학교 강사

을 논한 바 있듯,²⁾ 〈창란호연〉은 교훈성보다는 흥미성을 주로 한 작품이다. 또한 〈창란호연〉의 후편인 〈옥난기연〉의 필사자 ‘청계천 수표교 신소저’가 遊女일 가능성이 높음을 이상택이 밝힌 바 있듯,³⁾ 〈창란호연〉은 하충에 의 해서까지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작품이다.⁴⁾ 송성욱도 〈옥원재합기연〉과의 비교를 통해 〈창란호연〉의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면모를 검토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향유층이 하충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⁵⁾

이에 반해 〈완월회맹연〉은, 『매일신보』에 실린 「說大書」란 기사에서 1910년대에 읽히고 있는 소설들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그러한 책들 가운데 가장 문아하고 유식한 작품은 「미소명행」이오 그 다음이 「완월회맹」이오 (其書曰之最文雅有識者이 首曰眉蘇名行이오 次月[日의 오기]玩月會盟이오)”라고 논한 구절에서 볼 수 있듯,⁶⁾ 품격이 높은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한다면, 「미소명행」은 그 명칭만이 전해지고 실제 작품은 전해지고 있지 않기에,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 가장 文雅하고 有識한 작품은 곧 〈완월회맹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월회맹연〉이 ‘孝悌忠信’의 이념을 충실히 다루고 있다는 김진세의 논의나,⁷⁾ ‘禮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정병설의 논의⁸⁾ 또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1) 연경도서관본 〈창란호연〉, 10권, 772면.

2) 이상택, 「〈창란호연〉 연구」, 『진단학보』 75, 1993, 179면.(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이해』, 새문사, 2003, 273면에 재수록)

3) 이상택, 「〈창란호연 연작〉의 텍스트 교감학」,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9, 236-7면.(이상택(2003), 앞책, 318-319면에 재수록)

4) ‘청계천 수표교 신소저’가 〈옥난기연〉을 읽었다면 그 전편인 〈창란호연〉을 읽었을 가능성도 높다. 〈창란호연〉과 〈옥난기연〉은 전후편이 긴밀한 連作이기 때문이다.

5)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220면.

6) 『매일신보』 1916. 7. 20. 이 글은 于堂 尹喜求(1867~1926)가 쓴 글이다, 「설대서」에 대해서는 강명관(「說大書」 소개), 『문현과 해석』 14, 문현과 해석사, 2001. 봄, 191-194면)이 이미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7) 김진세, 「조선조후기소설에 나타난 세계관의 변이양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9, 60면.

8)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74-84면 출고(「〈완월회맹연〉

한편 “완월은 안겸제의 어머니가 지은 것인데, 궁중에 흘려보내 명성과 영예를 넓히고자 했다.(翫月 安兼濟母所著 欲流入宮禁 廣聲譽也)”¹⁰⁾는 「松南雜識」의 ‘翫月’이 〈완월회맹연〉일 가능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작품이다.¹⁰⁾ 따라서 〈완월회맹연〉은 최상충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명성과 영예를 얻기 위해 지어진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문헌자료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다면, 〈창란호연〉은 통속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향유충이 하충으로까지 내려가는 작품이라면, 〈완월회맹연〉은 품격이 높은 가운데 최상충의 향유충을 지향하는 작품인 것이다. 이처럼 〈창란호연록〉¹¹⁾과 〈완월회맹연〉¹²⁾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매우 상반되는 작품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연구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두 작품에 관한 비교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두 작품을 처음으로 비교 연구하여,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기로 한다. 두 작품의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비교하는 것이

의 모티브 활용 양상 연구, 『성심어문논총』 26, 2004, 183-186면)에서도 「완월」의 禮式 모티브에 대해 논한 바 있다.

9) 趙在三, 「松南雜識」, 南征記 條.

10) 이러한 가능성은 임형택(‘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8, 164면)에 의해 처음 거론하였고, 이후 최길용(‘가문 소설계 장편소설의 형성과 전개’, 燕居齊신동익박사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국어문화연구』, 1995, 568면), 정병설(앞글, 125-166면)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정병설의 경우에는 전주 이씨 생애에 대한 면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다.

11) 13권 13책의 국립도서관본(『昌蘭好緣錄』,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9·10(김기동 편), 아세아 문화사, 1980)을 주자료로 삼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연경도서관본(『昌蘭好緣』 10권 10책, 『海外蒐佚本 한국고소설총서』 9-11(이상택 편), 태학사, 1998)을 참조하기로 한다. 이상택(1999), 211-225면)이 국립도서관본은 표현과 서사기법에서는 연경도서관본을 앞서지만 운전성·완결성의 면에서는 연경도서관본이 앞선다고 논한 바 있듯이, 이 둘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하 ‘창란’이라 약칭하며, 연경도서관본일 경우에는 별도로 ‘연경도서관본’이라고 표시해 주기로 한다.

12) 김진세 독해, 「完月會盟宴」 전 12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1995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료는 규장각본을 대상으로 한 교합본이긴 하지만 선행연구(정병설, 앞글, 12-16면)에서 소설연구의 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하 ‘완월’이라 약칭한다.

바람직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두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가정 내적인 갈등에 중점을 두고 그 인물형상과 갈등양상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¹³⁾ 이를 통해 두 작품의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II. 두 작품의 기본적인 유사성

1. 구조적 유사성

〈창란〉과 〈완월〉에는 각각 두 개의 핵사건¹⁴⁾이 존재한다. 〈창란〉에서는 장희-한제-장성완간의 옹서대립담과 장우-이운-이운혜(양난주)간의 부부갈등담(옹서대립담)이,¹⁵⁾ 〈완월〉에서는 정인광-장현-장성완간의 옹서대립담과 정인성-소교완의 繼母박대담¹⁶⁾이 핵사건으로 존재한다.¹⁷⁾ 그 가운데 〈창란〉의 장희-한제-장성완간의 옹서대립담과 〈완월〉의 정인광-장현-장성완간의 옹서대립담과 매우 흡사하다.

두 단위담¹⁸⁾ 모두 남주인공 가문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여주인공의 부

13) 두 작품 모두 가정 내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개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두 작품에서 주된 차이를 보이는 가정 내적 갈등에 중점을 두어 두 작품을 비교하기로 한다.

14) 하나의 작품에는 핵심이 되는 사건과 그 주변의 하찮은 사건들이 존재한다. 이를 핵사건(kernel)과 주변사건(satellite)이라고 한다. (S. 채트먼, 「이야기-사건적 요소들」, 『이야기와 담론-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1, 69-72면 참조)

15) 장우-이운-이운혜간의 갈등은 ‘부부갈등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옹서대립담’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갈등의 시작은 장우-이운혜간의 부부갈등에서 시작되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이를 부부갈등 못지 않게 이운-장우간의 옹서갈등 또한 심각하게 전개 되기 때문이다.

16) 繼母 대 前室자식의 갈등으로, 계모가 전실 자식을 박대함으로써 야기되는 갈등을 말한다.

17) 〈완월〉에서는 그 분량이 방대한 만큼 다양한 사건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사건은 정인광과 관련된 옹서대립담, 정인성과 관련된 계모박대담이다.

18) 송성욱(「Honsejangaejeong daehasosol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10-19면)은 ‘단위담’이란 한 주인공에 의해 주도되는 이야기이면서 그 자체로 완결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서사층으로,

친이 자신의 딸과 남주인공과의 婚約을 파기하고 權奸에게 빌붙어 남주인공 가문을 모해하려 하다가 이후 남주인공 가문이 복귀하자 비굴한 술책으로 사위의 용서를 받으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전개된다. 물론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 대한 절개를 지킴으로써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점 또한 흡사하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남주인공 가문과 여주인공 가문의 혼약 (옹서관계의 約定)
- ② 남주인공 가문의 정치적 위기에 따른 여주인공 부친의 배신(옹서갈등의 발단)
- ③ 여주인공의 정절 수호를 통한 남주인공과의 혼인 (옹서관계의 확정)
- ④ 남주인공 가문의 복귀와 장인의 변신 (옹서갈등의 심화)
- ⑤ 장인과 사위간의 갈등의 해소 (옹서갈등의 해결)

대웅되는 인물 유형 또한 매우 흡사하다. 자기집안을 배신한 소인형 장인을 장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주인공으로는 〈창란〉의 장희와 〈완월〉의 정인광이, 못난 부친이긴 하지만 부친을 부친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남편과 갈등하는 여주인공으로는 〈창란〉의 한천희와 〈완월〉의 장성완이, 온갖 비굴한 작태를 일삼으며 趨勢利慾하는 여주인공의 부친이자 소인형 장인으로는 〈창란〉의 한제와 〈완월〉의 장현이, 아들과 사돈의 갈등을 중재하고 불쌍한 며느리를 보듬어주는 남주인공의 부친으로는 〈창란〉의 장두와 〈완월〉의 정잠(정삼)이,¹⁹⁾ 남편과 마찬가지로 혼암한 여주인공의 모친이자 소인형 장모로는 〈창란〉의 오씨와 〈완월〉의 박씨가 각각 대웅된다.

이 외에 주변사건이긴 하지만 〈창란〉의 한창영-한제(오씨)-장난희간의 며

설화학의 용어를 빌자면 이 단위담은 '유형'의 의미와 '단락'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19) 〈완월〉에서 정잠이 정인광의 백부이긴 하지만 정인광의 부친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정인광이 장인인 장현을 용서하게 되는 것도 정잠의 훈계에 의해서일 정도로 친부인 정삼 못지않게 정인광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삼은 치사로만 등장하고 있어 벼슬살이의 질곡을 겪지 않기에, 「창란」의 장두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침을 겪게 되는 인물은 정인광의 백부인 정잠이다. 따라서 정인광의 부친격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친부인 정삼과 아울러 백부인 정잠을 고려해야 하며, 오히려 정잠이 〈창란〉의 장두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느리박대답과 〈완월〉의 장창린-장현(박씨)-정월염간의 며느리박대답도 매우 닮아 있다. 〈창난〉에서 남주인공 가문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배신하는 부친 한제와는 달리, 그 아들 한창영은 남주인공 가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남주인공의 누이인 장난희와 혼인하게 된다. 〈완월〉에서도 소인인 장현과는 달리, 그 아들 장창린은 남주인공 가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남주인공의 사촌누이인 정월염과 혼인한다. 이로 말미암아 〈창란〉의 장난희와 〈완월〉의 정월염은 시부모에게 온갖 박대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를 끗끗하게 버텨내고, 이후 자신의 집안이 복귀한 뒤에는 두 집안의 다리 역할을 하며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힘쓴다.

이처럼 〈창란〉과 〈완월〉은 한 개의 핵사건과 한 개의 주변사건이 흡사하게 닮아있다. 비록 전체구조가 모두 닮아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구조의 상당 부분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1. 소재적 유사성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이 이외에 〈창란〉과 〈완월〉은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소재도 많다. 그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공통점이 드러나는, 시대적 배경설정, 주요 가문간의 관계, 조력자의 설정 등의 측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대적 배경 설정

〈창란〉과 〈완월〉은 모두 明英宗祖의 土木之變²¹⁾과 奪門之變²²⁾이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두 작품 모두 反親征派인 남주인공 가문이 영종의 親征을 부추기는 친정파 太監王振의 悖政을

20) 〈창란〉의 경우에는 모두 세 개의 사건이 나온다. 장희, 장우, 한창영에 관련된 사건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개의 사건이 〈완월〉과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이다.

21) 명나라 英宗이 마선을 親征하려 갔다가 도리어 土木이라는 지역에서 마선에게 볼모로 불잡히게 된 사건을 말한다.

22) 마선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영종이 돌아와 景泰帝를 내몰고 복위하는 사건을 말한다.

상소하다 위기에 처하자, 여주인공 부친은 남주인공 가문을 배신하고 왕진에게 빌붙게 된다. 이후 영종이 토복이라는 곳에서 也先(마선 : 오이라이트의 예센)에게 볼모로 잡히자 景泰帝가 등극하는데, 남주인공 가문은 새로 등극한 경태제와도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²³⁾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여주인공 부친은 다시 于謙에게 빌붙어 사돈 집안을 배신한다. 그러다가 영종이 也先에게서 풀려나 경태제를 밀어내고 복위하게 됨에 따라 남주인공 가문 또한 복귀하자, 여주인공 부친은 온갖 비루한 행실로 남주인공 가문의 용서를 받으려 한다.

2) 주요 가문간의 관계

〈창란〉과 〈완월〉 모두 남주인공 가문이 여주인공 가문에 은덕을 베푸는 가운데 兩家가 친밀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의 부친이 남주인공 가문을 배신하게 된다. 〈창란〉에서는 그 부모가 俱沒하고 홀로 남겨진 여주인공의 부친 한제를 남주인공의 祖父가 거두어 입신케 한다. 〈완월〉에서도 여주인공의 조부모가 기겁하는 것을 남주인공의 조부가 거두어 厚待하다가 그들이 죽자 그 아들 장현을 길러 입신시킨다. 그러나 이후에 한제/장현은 이런 은공을 저버리고 자기 가문을 보존키 위해 추세이욕하는 가운데 남주인공 가문을 배신한다. 그렇기에 남주인공 가문에서는 사돈이 그 문호가 한 미하기에 문호를 보존키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인행을 한 것이라는 논리로서, 한제/장현을 용서하게 된다.

3) 조력자의 설정

〈창란〉과 〈완월〉 모두 潮州 太行山의 엄도사와 그의 사위인 진가숙을 주인공 가문의 조력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창란」에서 엄도사는 반대파인 왕진 등에 의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장두를 조주 태행산에서 安居할 수 있게 보호하고, 진가숙은 도적떼에 잡혀 있는 장두의 아들

23) 〈창란〉과 〈완월〉에서 남주인공 가문은 모두 경태제가 등극하기 전 경왕이었을 때 그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기에 경태제가 남주인공 가문을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장회를 구해내어 부자가 상봉할 수 있게 한다. 이후에도 엄도사는 장씨 가문을 陰助하며, 진가숙은 장회 등의 出征시 장수로 따라가 보좌한다. 「완월」에서도 엄도사는 큰어머니 소교완의 독수로 인해 조주로 표류해 와 妖道에게 잡혀 있는 정인광을 구해내고, 이후 영종을 대신하여 마선에게 불모로 잡혀 있는 정잠과 그의 아들 정인성 등을 보호해 준다. 진가숙 또한 정인광, 정인성 등의 출정시 따라가 돋는다.

이 밖에도 〈창란〉과 〈완월〉은 많은 공통된 소재를 지니고 있다. 女裝한 사위에게 淫心을 품다가 봉변당하는 장인의 모습, 사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사위에게 절까지 하는 등의 장인의 행태, 여주인공의 지속적인 吐血, 쌍등이 를 낳는 등의 여주인공의 평이하지 않은 출산, 남주인공 부친의 첨 들이기, 背腫을 수술하는 장면, 소인형 장인의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는 夜行 등등 酷似한 점이 많다. 〈창란〉과 〈완월〉 두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상동성은 여타의 고전소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진기한 면모라 할 수 있다.

III. 인물형상과 갈등양상의 차이

두 작품은 긴밀하게 닮아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소한 차이점들은 각각의 작품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창란〉과 〈완월〉의 인물형상과 갈등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닮아 있는 사건간의 인물형상과 갈등구조의 차이를 밝혀내는데 주력하면서도, 닮지 않은 사건까지도 함께 비교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 〈창란〉과 〈완월〉에서는 각각 두 개의 핵사건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매우 닮아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별로 닮아 있지 않다. 두 개의 핵사건이 존재할 때 닮아 있는 사건을 비교하는 것과 더불어, 닮지 않은 또 다른 사건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닮아 있는 부분을 통해서는 미세한 차이점을 감지할 수 있지만, 닮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는 그 차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작품 안에 두 개의 핵사건이 존재할 때, 하나에 대한 또 다른 쌍이 어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

다. 작품의 주제라는 것은 결국 이 두 사건의 상옹을 통해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닮지 않은 또 다른 핵사건도 비교의 대상에 넣어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닮아 있는 주변사건도 비교 논의하기로 한다.

1. 인물형상의 차이

〈창란〉과 〈완월〉에서 대웅되는 인물형상 가운데, 남주인공의 부친, 여주인공의 모친의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으나, 여주인공, 남주인공, 여주인공의 부친, 여주인공의 오라비, 남주인공의 형제(또 다른 남주인공)²⁴⁾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여주인공 : 峭強한 인물 대 溫順한 인물

〈창란〉의 여주인공 한천희와 〈완월〉의 여주인공 장성완은, 남주인공 가문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배신하는 부친과는 달리, 끝까지 신의를 지켜 남주인공과의 혼사를 이루어내는 인물로 설정된 점에서 흡사하다. 그럼에도 두 인물의 형상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창란〉의 한천희는 매우 빼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峭強하고 奢侈하며 孝順치 못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지분을 조석으로 홀난이 흐고 하로 다섯 번 웃슬 가(라) 입으며 쥐옥검수를 날노 쥐흐여 극치호시고 정당이 겨오 빅보는 흐거늘 부더 교즈를 트고 향을 좌우로 잡아 비복이 비록 자우흐천이나 혈육 일신이여늘 쌬른 노와 급한 소리로 나는 디로 흐여 형육흐난 티벌을 어드니 실노 덕행이 완전치 못 흐미라”²⁵⁾라고 묘사될 정도로, 초강하고 사치하는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부모 앞에서도 성을 내며 自害하는²⁶⁾ 등의 패악스런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24) 남주인공의 형제는 결국 또 다른 핵사건에서의 남주인공으로, 〈창란〉의 장우와 〈완월〉의 정인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의 작품에서의 남주인공이나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창란〉의 장희, 〈완월〉의 정인광과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남주인공의 형제’라 지칭하기로 한다.

25) 〈창란〉 1권, 70면.

26) 머리를 두드려 피나게 하기도 하고 칼로 자신의 팔을 찌르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그렇기에 우여곡절 끝에 한천희의 시비가 된 남주인공 장희는,²⁷⁾ 이런 행실을 보고 “부모 그르신 일이 잊혀들 울며 죽기로써 간흘 법은 잊거니와 엊지 존전의서 발악호기를 예수로이 아라 극호 노와 쌈른 소리로 경순지예를 모로시는잇고”²⁸⁾라고 말하면서 그 孝順치 못한 행위를 개탄하게 된다.

이후에도 이러한 성격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비록 시부인 장두의 가르침을 받고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庶母 진씨를 맞이하여 집안일에서 벗어나자 “등의 가시을 쌈듯 쇠원”²⁹⁾해 하고, 시동생 장우의 혼인날 친부모 없이 결혼한 자신과는 달리 양가부모 앞에서 성대하게 결혼하는 것을 시샘하여 稱病하고 나오려 하지 않으며 남편과의 조그만 불화에도 화를 내고 발악하는 등 계속해서 초강하고 교만한 면모를 지닌다. 이런 까닭에 한천희의 오라비인 한창영은 “누의 과연 빅팅의 혼 가지 스덕이 볼 거 업스더 악장 [장두]의 후흘호시는 성덕이 여초호시니 쇼싱의 남미 무어스로 만일을 보답 호리잇고”³⁰⁾라고 하면서, 누이의 媳父이자 자신의 악장인 장두에게 누이의 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대해주는 것을 감사해한다.³¹⁾

이외는 대조적으로 〈완월〉의 장성완은 溫和하고 儉素하며 孝順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장현이 장성완에 대해 “온뉴호고 화순”³²⁾하며, “사치를 원슈

서슴지 않는다.

27) 장희가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은 본래 경성의 한상서댁 비복이었기에 그녀의 딸도 한상서댁 비복으로 가야 할 처지이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자신이 이미 늙은 나이인데다가 자식들이 다 죽고 하나 남은 딸마저 떨어지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장희에게 자기 딸 대신 그곳에 시비로 가 줄 것을 간절히 청하게 된다. 장희는 그간 집주인이 자신에게 침식을 제공해 준 은덕을 갚기 위해서, 또 왕진이 자신을 잡으려는 방이 도처에 널려있는 위험한 처지이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청대로 비복으로 가게 된다.

28) 〈창란〉 1권, 68면.

29) 〈창란〉 5권, 548면.

30) 〈창란〉 8권, 136면.

31) 〈창란〉에서의 남녀주인공과 장인의 인물형상 및 이들간의 갈등양상에 대해서는 졸고(『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 『고소설연구』 15집, 2003, 297-300면)에서 이미 간략하게 고찰한 바 있다.

32) 〈완월〉 18권-2권:83면(‘-’를 중심으로 전자는 원작품의 권수이고, 후자는 김진세 교합본(앞책)의 권수와 면수이다. 이하 동일하다)

갓치 알오미 잇시니³³⁾ 라고 말하는 대목과, 연부인이 장성완에게 보낸 편지에서 “효순호여 죽기의 이르러도 거스리미 업슬 바를 올히 넉일가 염네호 미 무궁호”³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자신의 부모를 멀시하거나 자신의 부모에 대한 연좌로 그녀를 냉대할 때도 묵묵히 안내할 뿐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 시부인 정삼은 “현부의 노조유한 덕행과 뉴순호 체되 모를 거시 아니니 현부는 너 말이 결단 업고 우몽호므로 아디 말며 촌녁 현부의 익슈를 마셔 격는 비를 싱각호여 병례를 상손치 말나”³⁵⁾고 말한다. 장성완이 그 뛰어난 성품에도 남편의 냉대를 받는 것은 운명일 따름이니 마음을 상하지 말라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란〉의 한천희와 〈완월〉의 장성완은 그 심지가 굳은 점에서는 매우 흡사하나 그 밖의 면에서는 거의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두 인물이 이렇듯 대조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은 장성완의 경우, 親母인 혼암한 박씨 이외에 또 다른 모친 연부인이 존재하는 것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⁶⁾ 「창란」에서는 비록 한천희가 빼어난 인물이나 혼암한 부모 밑에서만 자라게 된다. 이외는 달리 장성완은 혼암한 박씨보다도 현철한 연부인을 훨씬 더 따라 그 친모 박씨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길 정도로 연부인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자라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남주인공 : 輕率한 인물 대 嶢固한 인물

〈창란〉의 남주인공 장희와 〈완월〉의 남주인공 정인광은 소인인 장인과는 달리 군자형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점에서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3) 〈완월〉 20권·2권:125면.

34) 〈완월〉 22권·2권:99-200면.

35) 〈완월〉 43권·3권:423면.

36) 장현은 스승인 정한의 주선으로 賢妻인 연부인을 정실로 맞이한다. 그러나 혼암한 박씨를 재실로 맞이한 뒤에는 연부인을 내쫓고 박씨를 정실로 세우게 된다. 장성완은 연부인이 쫓겨나기 전 그녀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

〈창란〉의 장회는 그 장인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다가도 다시 장인을 욕하기도 하고, 아내 앞에서 장인의 잘못을 낱낱이 말하기도 하며,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는 폭언을 하는³⁷⁾ 등 즉자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감정적인 성향으로 인해 부부간의 잠자리에서도 일시 風情이 일어나면 아내에게 동침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반해 〈완월〉의 정인광은 “티강준고호여 칙인의 미과를 용수치 아니하고 고예 티승호여 스롭으로 더브러 아이의 상힐치 아닐지언정 결우기를 당호여는 항녀초춘희미 금고의 무쌍호니 브더 이심히 정단호여 씩지러 니고 꿈치는지라”³⁸⁾라는 서술자의 논평에서 볼 수 있듯, 강렬하고 고집 센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티강준고(太剛峻固)”하고 “항녀초춘(抗厲峭峻)”한 성품으로 인해 소인형 장인에 대한 냉대 역시 일관되며, 장회처럼 일시 풍정으로 아내에게 동침을 강요하는 일도 없다. 결혼 후 반년이 지나서야 아내와 이성지친을 이루게 될 정도이다.

두 인물의 성격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들 수 있다. 〈창란〉의 장회와 〈완월〉의 정인광은 집안의 정치적 위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流離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집안을 배신한, 미래의 장인의 집에 시비 혹은 첨으로서 들어가게 된다. 이 때에 〈창란〉의 장회는 “수중의 지보를 엊지 못 호고 다라날 도리 업스니 잠간 천연호여 소제한천희를 다리여 빅금을 엊고져 호여”³⁹⁾ 한천희의 시비노릇을 계속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완월〉의 정인광은 장현의 첨이 되었을 때

37) 장회의 동생 장우가 이윤의 은덕을 입고 그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난주 때문에 본부인 이운혜와 갈등을 겪고 배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한천희는 양난주가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장회는 집을 나와 자신을 조주까지 따라온 한천희가 도리어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장인 한제가 장씨 집안을 배신하고 다른 데 시집보내려는 것을 피해서 한천희가 집을 나왔다가 우연히 장회가 있는 조주에 이르게 되었던 일을 조롱한 것이다. 즉 이는 한천희가 부친의 失德으로 인해 도로에서 流離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조롱하는 일로, 한천희의 마음 속에 있는 열등감과 원죄의식에 깊은 상처를 내는 폭언인 것이다.

38) 〈완월〉 55권·4권:313면.

39) 〈창란〉 1권, 58면.

“불인의 짓물 쓰미 무어서 조흐리오 (...) 당공의 은주는 혀비치 못흐리라”⁴⁰⁾ 하며 장현이 주는 은자를 쓰기는커녕, 심지어 그가 주는 음식까지도 먹지 않는다.

한천희에게 노자를 얻고자 하는 장희의 행실은, 훌훌 단신으로 떠돌고 있는 그 처지를 생각할 때는 일견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천희가 주는 재물이란 결국 한제의 재물로, 자기 집안을 배신하고 온갖 비루한 행실을 일삼는 한제의 재물을 가지고 노자를 삼으려는 점은 진중치 못한 면을 다분히 지닌다. 이와는 달리 흡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현과 같은 인물의 더러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다 하여 돌려주며 심지어 그 음식조차도 먹지 않는 정인왕의 모습은 그의 “궤집준고”⁴¹⁾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3) 여주인공의 부친 : 개과하는 인물 대 개과하지 않는 인물

〈창란〉과 〈완월〉에서 여주인공의 부친은 온갖 비굴한 행위를 일삼는, 소인의 전형으로 설정된 점에서는 흡사하다. 그러나 결말 부분에서의 개과 유무에 따라 그 인물형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창란〉에서의 한제는 개과할 만한 별다른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醜卑하고 뻔뻔한 성격으로 일관한다. 추세이욕하여 사돈이 될 집안을 배신함으로써 비루한 행실을 보여주던 한제는, 작품의 말미에서 조차 사위의 동생 장우가 그 장인을 배은하는 행동을 하자 이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로 삼아 사돈집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남방을 순무하고 돌아온 사위 장희가 자기집을 찾지 않자 歸寧온 딸을 구가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는 등 끝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고전소설의 인물로서는 특이하게 한제는 뚜렷한 결함이 있는데도 개과하지 않은 채로 그 성격을 시종일관 유지한다.

〈완월〉에서의 장현은 추비한 인물로 설정된 점에서는 「창란」의 한제와 공통되나 이후에 변모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다. 비명에 간며느리 여씨의 혼령에게 곤욕을 치루고 자신의 先親 장합에게 불려가 答杖

40) 〈완월〉 19권-2권:95면.

41) 〈완월〉 55권-4권:310면.

을 당하여 중병에 걸린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군자형 인물로 거듭나게 된다.

4) 여주인공의 오라비 : 豪放한 인물 대 端重한 인물

여주인공의 오라비인 〈창란〉의 한창영과 〈완월〉의 장창린은 남주인공 가문이 정치적 열세에 처했을 때 남주인공의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남주인공 가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인물로서 등장하며, 이들의 뛰어난 면모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여주인공 가문을 힘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흡사하다. 그럼에도 두 인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창란〉에서 한천희의 오라비인 한창영은 빼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호색하는 풍류왕으로 그려져 있다. 결혼 전에도 “도쳐의 미인을 쓰라 유경호”⁴²⁾ 는 행실로 인해 외삼촌인 오급사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결혼 후에도 “국 중도 호식호니 혼물며 말세 셔싱을 이르며 더욱 주현 기녀도 한원명스의 가관지물이라 한번 음쥬청악호미 흠 되리오” 하며 처남인 장희, 장우에게 함께 靑樓에 갈 것을 종용한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 장성완의 오라비인 장창린은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렇기에 〈창란〉의 한창영과는 달리 探色하는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들의 성장배경의 차이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인물이 놓여진 상황이 매우 흡사함에도 〈창란〉의 한창영은 비록 부모의 결을 떠나 외삼촌인 오급사댁에서 자라긴 하지만 소인형 인물인 한제를 부모로 두고 자란다. 이에 반해 〈완월〉의 장창린은 迷兒가 되어 군자인 이번의 양자로 길러지다가 다 자란 이후에야 장현이 친부임을 알게 된다.

5) 남주인공의 형제(또 다른 남주인공)의 경우 : 애정 중심적 인물 대 효 중심적 인물

앞서 논한 바 있듯, 〈창란〉에서는 남주인공의 아우인 장우에 관한 이야-

42) 〈창란〉 3권, 203면.

기가 남주인공 장희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주요한 핵사건으로 등장한다. 「완월」에서는 남주인공의 형인 정인성에 관한 이야기가 남주인공 정인광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주요한 핵사건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역할이 닮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창란〉과 〈완월〉에서 닮아있는 용서대립담 이외에 각각의 작품에서 주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된다.

이들의 인물형상을 살펴보면 〈창란〉에서의 장우는 애정이라는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집안의 은인이자 장인인 이윤을 배신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윤은 장우의 부친 장두가 왕진의 참소로 위기에 처했을 때 极諫하여 장두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부친의 귀양으로 인해 떠도는 장우를 거두어 길러주고 사위로까지 삼아준 인물이다. 그런데 장우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양난주라는 여인 때문에 이윤의 딸이자 아내인 이운혜를 냉대하게 된다. 이처럼 장우는 가문의 명예나 은인에 대한 신의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리게 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의 정인성은 자신을 온갖 술책으로 해치려는 계모 소교완을 지극한 효심으로써 개과하게 만드는 가운데 가문의 평화를 도모하는 인물로서 등장한다. 소교완이 친부모에게 그 악행이 들통 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맨발로 피나도록 달려가 구해내고, 소교완이 死境을 헤맬 때도 자신의 목숨으로써 대신하기를 빈다. 정인성은 ‘효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효를 중시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창란〉과 〈완월〉에서 대용되는 인물은 일견 비슷해 보이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마치 자로 재듯, 대용되는 인물들간의 상반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물형상의 차이를 통해 〈창란〉에서는 개인적 감정에 솔직한 가운데 인물들의 결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도덕적 이념에 충실한 가운데 인물들의 결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⁴³⁾ 그렇

43) 물론 남주인공의 경우에는 누가 더 결함이 많고 적은가를 따지기가 어렵다. 〈창란〉의 장희가 진중치 못한 면모가 결함이 될 수 있고, 〈완월〉의 정인광은 너무 고집스런 면모가 결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들의 이러한 성격이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가의 문제이다. 장희의 경우에는 아내에 대한 애정을 중시하게 되고, 정인광은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윤리적 이념을 더 강조하게 되는 인물은 장희보다는

기애 〈창란〉의 인물들이 〈완월〉의 인물들에 비해 더 많은 결함을 노정하고 있으며, 〈완월〉에서는 결함을 가진 인물들은 그 결함을 고치는데 반해, 〈창란〉에서는 그러한 결함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가운데 〈창란〉에서의 주요인물은 애정 등의 개인적인 욕구에 더 경사되는 측면을 보이고, 〈완월〉에서의 인물들은 효 등의 집단적인 이념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2. 갈등양상의 차이

앞장에서 〈창란〉과 〈완월〉에서의 대웅되는 주요인물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갈등양상 또한 이러한 인물형상의 차이점과 맞물려 두 작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남녀간의 예절의 문제

갈등양상의 미세한 차이점을 면밀하게 대비해 보았을 때, 〈창란〉과 〈완월〉은 기본적인 예의범절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남녀간의 예절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남녀주인공간의 갈등을 보면, 〈창란〉에서는 경솔한 남주인공과 초강한 여주인공이 대립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준고한 남주인공과 온순한 여주인공이 대립함으로써 갈등양상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두 남녀주인공의 만남의 설정 자체가 〈창란〉과 〈완월〉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남녀 주인공간의 갈등양상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결혼 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면, 〈창란〉에서는 남주인공 장희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 女裝한 채 여주인공의 시비로 들어가 함께 기거하는데 서부터 이들의 갈등은 시작된다. 부친 장두가 귀양간 후 왕진 일파의 毒手를 피해 여장한 채 떠돌던 장희는 신세를 지고 있던 집주인이 자신의 딸을 대신하여 재상가의 시비로 들어가 줄 것을 청하기에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정인왕으로 나타난다.

가게 되는데, 그곳이 우연찮게도 자신의 집안을 배신한 한제의 집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장희는 뛰어난 인물됨으로 인해 한천희의 시비로 뽑히게 된다. 비록 남주인공 장희가 여주인공 한천희를 親狎하지는 않지만, 婚前 남녀가 한 방에서 기거하는 진기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⁴⁴⁾ 더욱이 미래에 부부가 될 남녀 주인공이 奴主 관계를 형성하면서, 한천희는 장희에 대해 “부운장희이 천호 연이 딘인의계 음퍼공교호 끼를 쥬호니 이제 죽엄직호니 이다”⁴⁵⁾라고 말하기도 하고,⁴⁶⁾ 장희는 한천희의 표독스런 면모를 보고 “가히 일넓 계집이로다”⁴⁷⁾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후에도 장희는 우연히 객점에서 만난 한천희를 자신의 신분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회통하게 된다. 한천희의 시비로 있던 장희는 중국에는 한천희의 부친 한제가 여장한 장희를 겁탈하려는 사건 때문에 性別이 발각되어 달아나게 되고,⁴⁸⁾ 한천희는 ‘부운’으로 여장했던 장희가 자신의 약혼자인 줄 모

44) 물론 이와 흡사하게 남녀가 한 방에서 지내게 되는 장면이 〈창선감의록〉의 윤여옥과 엄월화에 관한 대목에서도 나온다. 그런데 〈창선감의록〉이 〈사씨남정기〉와 더불어 도덕적 효용론의 입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이 이러한 측면에서만 가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은 도덕적 효용론의 차원에서보다는 소설적 흥미를 위한 차원에서 가능하는 측면이 강하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당대의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선감의록〉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남녀주인공이 아닌 여타의 인물들에 의해 삽화적으로 간략히 나오는데 반해, 〈창란〉에서는 남녀주인공에 의해 상당히 비중 있게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창선감의록〉에서는 엄월화가 윤여옥의 침이 되는데 반해, 〈창란〉에서는 한천희가 장희의 嫦室이 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창란〉에서는 남녀주인공간의 예의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창선감의록〉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45) 〈창란〉 1권, 72면.

46) 한천희의 시비로 있던 장희(부운)는 자기집안을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미래의 장인인 한제의 작태와 더불어 한천희의 교만하고 불손한 면모를 보고는 한천희와 부부가 될 생각을 상당 부분 버리게 된다. 그렇기에 장희는 한제가 자신의 딸을 권력가에 시집보내려 하자, 한제에게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천희는 이에 장희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47) 〈창란〉 1권, 67면.

48) 한제는 장희가 자신의 딸 한천희의 시비로 뽑혀 들어온 순간부터 장희에게 淫心

르기에 외간남자와 동거한 것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부친이 자신을 다른 데 시집보내려는 것을 피해 승려가 되려고 집을 나와 떠돌다가 한 객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연찮게도 장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정절에 흡집을 냈던, 평소 切齒腐心하던 장희를 본 한천희는 잘 만났다 싶어 間罪하려 하니 장희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도리어 한천희를 방안에 가두고 농락하게 된다. 물론 “장성[장희]의 얼굴이 아름다워도 날마는 못 흐리니 방심흐라”⁴⁹⁾라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장희는 자신의 신분도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⁵⁰⁾ 이 때 장희는 한천희를 가두고 억지로 “이불을 덥고 (누) 은 후 벼기 갓치 베고 누”⁵¹⁾을 정도로 혼전 남녀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크다. 더욱이 장희는 “운몽의 죽음을 훈 가지로 흐리라”⁵²⁾라고 밀하기도 하고 한천희는 “너 죽어 귀신이 되어 너를 만단의 씨저 죽기리라”⁵³⁾ 욕하며 장희를 칼로 찌르려 하고 그 손을 물어뜯는 등 서로 간에 예의에서 벗어난 행

을 품게 된다. 평소에는 장희가 한천희와 동숙하기에 좀처럼 기회를 갖지 못 하던 차에, 장희가 한천희를 권력가에 시집보낼 계책을 한제에게 알려주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천희가 장희를 다른 방으로 내치자 이 기회를 틈타 장희를 겁탈 코자 한다.

49) 〈창란〉 1권, 120면.

50) “셔 여지 아모 스체를 모로고 슈절흐기만 아라 필경 지복유리흐는 지경의 이르니 현부간 츠마 바리지 못 할 거시로더 당금 형세 거들 거시 어렵고 곤경을 당흐니 심히 절박한지라 제 쪼 괴거흐여 너 본격을 이르나 순이 쓰라갈 줄 모로니 엊지 흐여야 양편흐리오”(〈창란〉 1권, 112면)라는 대목을 통해 볼 때는, 장희가 떠들이다니는 처지이기에 한천희를 거두기 어렵고 한천희가 사실을 밝힐지도 않을 것이기에 장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과는 달리 장희가 曲境에 처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전후 문맥상 큰 설득력을 얻지 못 한다. 장희가 신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한천희의 성을 돋우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희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한천희가 투신자살한 후에 “너 천성이 소활흐야 한씨의 이디도록 강열흐므로 부즐업시 쳐을 페핍박흐여 차경의 이라니 (...) 아녀조로 하여금 결워 줄못흐여 죽게 흐엿시니”(〈창란〉 1권, 141-142면)라고 한탄하는 대목을 통해 볼 때, 한천희와 한 번 겨뤄 그녀를 회통해 보려는 의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51) 〈창란〉 1권, 116면.

52) 〈창란〉 1권, 118면.

53) 〈창란〉 1권, 118면.

동을 서슴지 않는다. 한천희가 투신자살하게 되는 것 또한 결국 남주인공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에서 기인한다. 장희의 모욕스런 행위를 참지 못 하던 한천희는 장희가 잠시 나간 틈을 타 강가로 내달려 투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외는 달리 〈완월〉에서는 처음부터 남주인공 정인광을 지방관으로 내려온 여주인공의 부친 장현의 첨이 되도록 설정함으로써⁵⁴⁾ 「창란」에서와 같이 남녀주인공이 한방에서 동거하는 등의 기막힌 만남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장한 사위의 미모에 淫心을 품고 미래의 장인이 미래의 사위를 겁탈코자 하는 동일한 장면이 동시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면의 형상화가 「창란」에서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시비로 지내다가 일어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남주인공이 처음부터 미래의 장인의 첨이 되었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완월〉에서는 남녀주인공간에 奴主로 지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여주인공이 투신자살하게 되는 원인 또한 〈창란〉에서처럼 남주인공의 잘못이 아니라 범경화라는 蕩子의 겁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심지어 남주인공 정인광은 장현이 상경함에 따라 장성완이 있는 태운산 古宅에 오게 되었을 때도, 여자로 행세함에도 불구하고 내당에 거쳐하지 않고 외당에 기거함으로써 장성완과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결혼 전 정인광은 물에 빠진 장성완을 구해줄 때 이외에는 그 얼굴조차 보지 못할 정도이다. 그렇기에 정인광은 장성완을 장현의 딸이 아닌, 소공의 양녀이자 연공의 친녀로 알고 결혼하게 된다.⁵⁵⁾

결혼 후의 갈등에서도 〈창란〉에서는 여주인공 한천희가 峭強하고 남주인

54) 繼伯母 소교완의 독수로 인해 사촌누이 정월염과 떠돌던 정인광은 낙성촌에 안찰사로 내려온 장현이 정월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첨으로 들이려 하자 사촌누이를 대신하여 장현의 첨으로 가게 된다. 이 때 정인광은 자신의 부모를 찾기 전에는 許身할 수 없다며 장현과의 동침을 거부함으로써 남자임이 들통나지 않도록 한다.

55) 정인광은 장성완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물에 투신자살한 장성완을 소공과 함께 구해줄 때도 그녀가 장현의 딸인 줄을 모른다. 그렇기에 정인광은 장성완과 혼인할 때도 장성완이 아닌 소공의 양녀 정도로만 알게 된다. 이는 정인광이 장성완과 혼인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고 집안사람들이 사실을 속여 결혼시켰기 때문이다.

공 장희가 진중치 못하기에 부부간에 몸을 부딪혀가며 싸움을 하는 등 예절에서 벗어난 모습을 많이 보인다. 장희는 풍정이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親合을 강요하나, 초강한 한천희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을 조롱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몸소 표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동침을 청하는 남편을 “밍열이 뿌리 쳐 시랑 갈호 갓치 네이”면서 “죽기로 먼리 흐냐”⁵⁶⁾ 거절하거나, 자식을 방패 삼아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절하는 등의 적나라한 부부 싸움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장성완이 온순한 인물이고 정인광은 준고한 인물이기에 비록 부부갈등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부부가 몸싸움을 하는 등의 적나라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인광은 〈창란〉의 장희처럼 동침을 강요하는 일도 없고 장성완 또한 남편의 냉대와 무시에도 묵묵히 인내할 따름이다. 장성완과 정인광과의 언사조차도 주로 시비들을 통해 오갈 정도로 직접적인 대면 장면조차 드물 정도이다.

이처럼 두 작품은 남녀간의 예절에 관한 문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창란〉에서는 혼전 남녀간의 접촉이 심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간의 적나라한 몸싸움이 드러나는 반면, 〈완월〉에서는 남녀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 규범에 충실했다.⁵⁷⁾ 결혼 전에는 ‘男女七歲不同席’의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⁵⁸⁾ 결혼 후에도 内外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56) 〈창란〉 2권, 170면.

57) 물론 〈완월〉에서 남녀간의 예절을 준수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도, 남성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의 모습을 확실하게 그려내기 위해 이런 갈등구조를 설정했을 가능성도 높다. 〈창란〉에서 비록 남녀주인공이 혼전 빈번히 접촉하는 등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결합이 있으나, 자기에 대한 절개만은 굳건한 여주인공에 대한 애정을 쌓아가게 된다. 또 남주인공이 진중치 못한 면모를 가지고 여주인공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초강한 여주인공이 이에 대해 반격을 가함으로써 기부장제 사회에서의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을 일방적으로 그려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남주인공 정인광이 워낙 준고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혼전 남녀 주인공간에 접촉이 없기에 온순한 여주인공 장성완에게 애정을 갖기는커녕 자결을 명령하고 출거하기까지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완월』에서는 남성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의 모습이 〈창란〉에서보다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58) 〈완월〉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의 윤리를 고수하려는 대목은 정홍의 딸 정기염의 경

이는 남녀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의 오라비에 관한 대목에서도 흡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창란〉에서 “허랑호 호결”⁵⁹⁾로 등장하는 한천희의 오라비 한창영은, 위기를 피해 男裝한 장희의 여동생 장난희가 여자임을 짐작하고는 일부러 執手同席하는 등 혼전 남녀간의 접촉이 심하다. 또한 결국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긴 하지만 외삼촌인 오급사의 주선 아래 부모에게는 不告而娶한 채 혼인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장성완의 오라비인 장창련은 단종한 인물로, 어렸을 때 迷兒가 되어 이번의 양자로 길러지는 가운데 양가 부모에 의해 완월대에서 정월염과 혼약한다. 이런 정식적인 혼약의 절차를 거쳐 장성완과 맺어지며, 혼전 남녀간의 접촉에 관한 내용도 볼 수 없다.⁶⁰⁾

이처럼 〈창란〉에서는 주인공 혹은 주인공에 버금가는 주요한 인물들의 경우 기본적인 예절, 그 중에서도 남녀간의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의 경우 남녀간의 예절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2) 애정 대 효의 문제

앞서 인물형상에서 〈창란〉이 주로 애정을 지향하는 인물들이 많다면, 〈완월〉에서는 효를 지향하는 인물이 많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갈등양상 또한 〈창란〉과 〈완월〉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남녀주인공간의 갈등양상을 보면, 〈창란〉에서는 부부간의 애정 문제가 주로 부각되어 있을 뿐, 효의 문제로까지 심화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⁶¹⁾ 남

우에서도 볼 수 있다. 정기염은 자신의 부친 정흠이 寥死한 것을 伸冤하려 천자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이 자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일곱 살인 그녀가 남녀칠세부동석의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듈다.

59) 〈창란〉 3권, 202면.

60) 물론 〈완월〉에서 장창련과 정월염이 맺어지는 부분은 “명성호연”에 있다 하여 매우 축약되어 있어 전모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축약된 부분을 가지고 볼 때, 그들 사이에는 혼전에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61) 이에 대해서는 송성욱(앞글(2001), 204-211면)에 의해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남녀 주인공의 독특한 인물형상을 바탕으로

편은 자기 부모를 해치려 했던 장인 때문에, 아내는 자기 부모를 멸시하는 남편 때문에 갈등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효의 문제가 애정 문제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자기 부모에 대한 효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자존심과 애증의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효에 관한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희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를 해치려 했던 한제의 떨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한천희에 대한 애정은 “천지조판 이리도더 건곤이 좁은 정이 있”⁶²⁾기에 풍정이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동침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며,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 아내가 \
吐血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가시을 쟈 스죄흐랑이면 남 모로게 그리도 흐”⁶³⁾여 아내의 화를 풀게 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하면서 아내에게 짤짤매게 된다. 한천희의 오라비인 한창영이 장희 부부의 침실을 엿보고는 장희가 누이동생 한천희에게 짤짤매는 可觀을 치소하면서 장희가 \
失體함에 한천희가 벼룩없이 구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서 볼 수 있듯,⁶⁴⁾ 이들 부부 갈등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애정에 치우쳐 정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에 아내가 남편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양상이 주로 펼쳐진다.

한천희 또한 부모를 멸시하는 남편에 대한 憎恨으로 토혈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남편 둘만의 애증의 문제로 인해 토혈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평소에는 부친에 대한 연좌로 자신을 脅制코자 하다가도 풍정이 일어나면 억지로 동침하는 남편의 행위에 대해 자신을 外親內疏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숨기고 나머지 토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자신의 부친을 냉대하는 남편

이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62) 〈창란〉 6권, 620면. 장희가 한천희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있음을 “당초시호여 쟈 [한천희] 향호는 정이 촌보를 뗄나지 아니하니”(〈창란〉 2권, 183면), “한씨한천희] 향호 마음은 제어호기 어려워”(〈창란〉 2권, 188면) 등의 구절에서도 잘 나타난다.

63) 〈창란〉 5권, 578-9면.

64) 한성[한창영이] 학식[장희의] 말을 읊겨 전하고 우어 월 “당희 일성 스쇠을 지어 춤되텐 체 호더니 규방의 드리는 세” 흐고 놓열호미 쌈이 업스니 엇지 우습지 아니하리오 누의[한천희] 그 가부의 산을 보고 실노 실체호미 즈즈니 진실노 날 노 당호면 어니 쳐즈의 버르실 그쳐로 흐고 좀시나 견디리오”(〈창란〉 8권, 140면)

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남편의 애정의 진실됨에 대한 의구심이 쌓여 마음의 병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男服하고 떠돌았던 일을 도리어 남편이 비웃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 토혈하기도 하고, 신어사의 계교로 인해 남편이 부부 사이의 은밀한 대화를 남들에게 말한 것으로 차각하고는⁶⁵⁾ 남편이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라 여겨 토혈하기도 한다. 한천희에게는 남편의 자신에 대한 애정의 진실함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들의 갈등이 불완전하게나마 종결되는 부분 또한 이들의 불화의 원인이었던 여주인공의 부친과는 별다른 관련을 가지지 않고 두 사람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점 또한 이를 잘 증명한다. 남편 장희가 閨房에서의 밀담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고 한천희가 차각했었던 일이, 실은 신어사가 꾸민 일임이 밝혀지면서, 또 설태우가 장희에게 청혼하는데 장희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이 불완전하나마 해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남녀간의 갈등에서는 애정의 문제가 표면화되는 가운데 효의 문제가 퇴색되어 버리는 감이 적지 않다.

「창란」에서 이렇듯 남녀주인공간에 애정의 문제가 부각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남녀간의 잣은 접촉을 들 수 있다. 남주인공 장희가 한천희의 시비가 되는 사건을 통해 장희는 비록 초강하고 폐악스런 한천희의 모습을 통탄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절개만은 굳건히 지키려는 모습을 곁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감동하게 된다. 더욱이 우연히 객점에서 만났을 때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한천희가 투신자살하게 되자, 한천희의 강렬함을 알면서도 희롱한 자신의 소활함을 통탄하면서 “뼈 쓰리고 일신이 녹는 듯”⁶⁶⁾ 슬퍼하게 된다. 혼전 남녀간의 잣은 만남은 기본적인 예절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주인공 입장에

65) 장희의 외종사촌인 신어사가 장희 부부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는 자신의 아들 신윤문을 시켜 마치 장희가 부부 사이의 은밀한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옮긴 것처럼 꾸미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한천희는 남편 장희가 부부간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라 오해하고는 남편에 대한 분한으로 토혈하게 된다.

66) 〈창란〉 2권, 142면.

서는 여주인공에 대한 연모의 정을 쌓아가게 됨으로써 차후 농도 짚은 애정 갈등이 펼쳐지게 된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혼전 남녀간에 접촉의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준고한 남주인공과 온순한 여주인공 사이에 애정이 끼어드는 양상을 거의 볼 수 없다. 정인광은 “틱강준고(太剛峻固)⁶⁷⁾한 인물로 자기 부친을 해치려 했고 만단으로 叱辱하기도 하는 빙부모에 대한 연좌로 장성완에게 세 번이나 자결을 명령하고 급기야는 鄙去할 정도로 아내에 대해 냉정하기 그지없다. 정인광에게는 아내에 대한 애정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가 훨씬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중병이 든 아내를 출거시킨 뒤 장성완의 主星인 ‘월아성’에 黑氣가 가득함을 보고 잠시 아내를 걱정하다가도 父兄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자신을 자책할 정도이다. 이처럼 이 둘 사이에는 애정갈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는 이들의 갈등이 해결되는 국면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정인광이 빙부모에 대한 연좌로 아내를 줄곧 냉대하다가 마음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은, 장성완이 사경을 헤매는 시어머니 화부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살려낸 일 이후부터이다. 정인광 또한 자기부모를 살려준 아내에 대한 보답으로 장인인 장현이 중병이 들었을 때 침술로 구해내는데, 이로 말미암아 장성완 또한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풀게 된다. 즉 이들의 갈등은 서로가 상대방의 부모를 죽을 위기에서 살려낸 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창란〉에서 애정이 중시되고 〈완월〉에서 효가 중시되는 이러한 차이점은, 남주인공의 형제와 관련한 또 다른 핵사건의 경우를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창란」에서는 자기 집안의 절체절명의 은인인 이윤의 딸 이운혜를 장우가 양난주에 대한 애정 때문에 배신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로 말미암아 부친인 장두에게 자식을 잘못 두어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가문의 명예를 떨어지게 한 것을 근심케 한다. 더욱이 양난주에 대한 상사병으로 사경을 헤매기까지 함으로써 부모를 더욱 애탏게 만든다.⁶⁸⁾

67) 〈완월〉 55권-4권:311면.

68) 이러한 점은 장두가 아들을 때문에 괴로움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다음과 같은 대

이외는 달리 〈창란〉의 장우와 대응되는, 〈완월〉의 정인성은 지극한 효심으로써 계모인 소교완을 개과하게 만드는 인물로, 모친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한다. 아내 이자염이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씀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악행이 드러날까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급기야는 죄 없는 아내를 출거시킬 정도이다. 이처럼 〈창란〉에서는 남녀간의 애정이 주로 부각되어 있다면,⁶⁹⁾ 〈완월〉에서 부모에 대한 효가 주로 부각되어 있다.

3) 인과구조의 문제

〈창란〉과 〈완월〉에서는 도덕률에 기반한 인과구조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옹서갈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창란〉에서는 끝까지 개과하지 않은 채 추행을 일삼는 장인과 진중치 못한 사위가 대립하는 가운데 끝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한다. 장인인 한제의 입장에서는 사위에게 절까지 하는 등의 굴욕적인 행위를 통해 사위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사위가 자신을 냉대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사위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사위인 장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인의 소인됨에 대해 더욱 속속들이 알아감에 따라 장인을 도저히 존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창란〉에서는 작품의 후반부에서도 “너이 옹서지간의 그 딕도록 노란흐나 밀서 몇 히을 두고 닷토는뇨”⁷⁰⁾라는 주위 사람들의 놀림을 받을 정도로 옹서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단지 장희가 부친의 염려와 親友이자 처남인 한창영의 체면, 아내 한천희와 그 자식들을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장인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옹서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완의 구조’로 끝나게 된다.⁷¹⁾

목에서 잘 드러난다. “두 아달의 괴로오미 만겹흐니 씨” 풍파을 부쳐너여 너의 가슴을 늘널 적 연》 김슈호리니 실노 괴로오미 만흔지라”(〈창란〉 10권, 423면)

69) 김기동(『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219면), 정종대(『염정소설 구조연구』, 계명문화사, 1990, 20면), 양영찬(『〈창란호연록〉의 애정갈등』,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4, 6면) 등이 〈창란〉을 ‘애정소설’로 분류한 논의 또한 〈창란〉에서 애정이 주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70) 〈창란〉 10권, 424면.

71) 양민정(『〈창란호연록〉에 나타난 翁·婿, 輿·婦間 갈등과 사회적 의미』, 『한국가문 소설연구논총』 2(이수봉 외), 경인문화사, 1997, 238면)이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준고한 사위와 소인형 장인 사이에 극도의 갈등이 전개되나,⁷²⁾ 중병에 걸려 死境을 헤매는 장인 장현을 사위 정인팡이 치료해주는 과정을 통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장인은 사위가 자신을 死病에서 구해준 일에 감동하고, 사위는 중병에서 나온 후 정명군자로 변해 있는 장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완월〉에서는 〈창란〉과는 달리 웅서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완결된 구조’를 가진다.

이는 웅서갈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부부갈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창란〉에서는 웅서간의 갈등마저도 미완으로 끝나 부부갈등이 해결될 기제를 마련하지 못 하는 가운데, 작품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부부갈등이 극도로 격렬하게 진행되다가 사소한 오해가 풀리고 부부가 화락하였다는 관습적인 결말로 끝나게 된다. 이외는 달리 〈완월〉에서는 소인형 장인이 개과하여 부부갈등을 야기할 기제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진정한 해결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창란〉은 열린 구조 혹은 미완의 구조로서 인과적 논리구조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있는데 반해, 〈완월〉은 닫힌 구조 혹은 완결된 구조로서 인과적 논리구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러한 인과구조의 문제는 각각의 작품에서 또 다른 핵사건과의 상응 관계를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창란〉에서는 전반부에 펼쳐지는 장화-한제-한천희 사이의 갈등과 후반부에 펼쳐지는 장우-이윤-이운혜 사이의 갈등과의 상보적인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망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장우-이윤-이운혜 사이의 갈등에서는 여타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知人之鑑 화소를 패러디하듯, 죽을 위기에 처한 부친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부친의 귀양으로 인해 떠도는 자신을 거두어 길러주고 사위로까지 삼아준 이윤을 배신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짐으로써 그 자체로 인과구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장화-한제-한천희 사이의 갈등과 대비됨으로써 작품 전체적으로 탈인과적인 구조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게 된다.

졸고(앞글(2003), 297-300면)에서도 논한 바 있다.

72) 〈완월〉에서는 〈창란〉에서와는 달리, 장모까지도 사위와 불화하는 가운데 사위와 빙부모간의 갈등은 〈창란〉에서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전개된다.

장희의 경우에는 장인 한제가 자신의 가문을 배신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한천희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데 반해, 장우의 경우에는 그 장인 이윤이 자신 집안의 중대한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이운혜에 대한 애정이 소원한 양상이 대비된다. 장희의 경우에는 “악장으로 유극호터 금실이 중하고”,⁷³⁾ 장우의 경우에는 악장의 “불세지원을 저모려”⁷⁴⁾ 아내를 박대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더욱이 강직하고 신의 있기로 명망 높은 이윤 또한 남편과의 잡자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딸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사위의 잘못만을 확대 해석하는 가운데 편협한 인간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이윤이 出征한 사이 그 부인 주부인이 자신의 딸을 박대하는 사위 대신 다른 남자에게 딸을 改嫁시키려 함으로써 이윤은 면복을 잊게 된다. 전반부에서는 남주인공의 부친인 장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절친한 사이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한제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장두를 구해준 이윤이 소인과 군자의 전형으로서 양별되었는데, 후반부에서는 이윤이 자신의 부인의 失德을 알게 된 뒤 자신이 소인형 인물인 한제보다도 더 보잘 것 없음을 탄식하고,⁷⁵⁾ 중국에는 자식을 잘 두어 복 많은 한제를 부러워하기까지 한다.⁷⁶⁾

이처럼 후반부의 장우-이윤-이운혜 사이의 갈등은 전반부의 장희-한제-한천희 사이의 갈등과 대비되는 가운데, 인과적 논리구조가 잘 통용되지 않는, 요지경 속의 세상사를 잘 보여준다. 恩怨에 반비례해서 돌아가는 세태, 德惡에 반비례해서 돌아가는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두 개의 핵사건이 〈창란〉에서마냥 긴밀하게 상

73) 〈창란〉 6권, 599면.

74) 〈창란〉 8권, 199면.

75) “썩일 혼공의 가항을 우서더니 당초시호야 너집 누덕이 도로혀 뒤셔니 스림이다 치쇼호여 쑤지즈미 업스나 붓그려음을 엇지 능히 참으리오”(〈창란〉 11권, 475면)

76) 한천희가 쌍둥이를 낳은 뒤 또 아들을 낳자 경거망동하며 기뻐하는 한제를 보고 이윤은 “한노의 거동과 유복함을 보고 조가로 딸을 길 업손자라 조연 안식이 다르”(〈창란〉 11권, 475면)게 된다. 또 한제의 아들 한창영의 빼어남을 보고 “유복호를 맛찰 길 업손 바는 창연의 도덕과 덕절을 위무불옹굴 부귀불옹음호니 엇지 부러호미 업스리오”(〈창란〉 11권, 475-6면)라고 말한다.

옹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건의 상보적 운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정인성-소교완간의 갈등은 정인성의 지극한 효성으로 말미암아 계모인 소교완을 개과시키고 母子가 화락함으로써 그 자체로 인과 구조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 갈등에서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정잠-소희량의 옹서 관계는 정인광-장현의 옹서 관계와 상반되는 가운데 옹서간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정인광-장현-장성완간의 갈등에서는 소인형인 친정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시집간 딸이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되고 사위가 첨을 얻자 장인장모가 사돈집을 질욕하는데 반해, 정잠-소희량-소교완간의 갈등에서는 시집간 딸의 잘못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며 군자형 인물인 친정부모가 딸을 죽여서까지 사위 집안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위에게 첨을 얻어주기까지 한다. 즉 정인광-장현-장성완의 갈등에서는 장인인 장현의 소인됨으로 인해 장성완과 정인광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며, 정인광이 우여곡절끝에 소체강이라는 첨을 두게 되자 장현 부부는 사돈 가문을 질욕한다. 이에 반해 정잠-소희량-소교완간의 갈등에서는 딸인 소교완의 폐악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야기되며, 소교완의 부친인 소희량은 딸의 폐악을 알고는 딸을 죽여 사위 가문의 안정을 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위에게 딸로 인해 마음 쓰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양씨를 첨으로 얻어주기까지 한다.

이처럼 전자에서는 옹서간의 갈등을 다루지만 결국 화합하게 되는 양상을, 후자에서는 옹서간에 아무런 대립 없이 화합하는 양상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현과 소희량이 대비되는 가운데, 장현의 추비한 행동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이를 통해 옹서간의 지향해야 할 바, 특히 장인이 사위를 대해야 할 태도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딸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 대국적으로 사위를 대해야 하는 것이며, 결국 장인이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사건의 상응을 통해 〈완월〉의 인과논리는 더욱 공고해진다. 이에 따라 인과 논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는 〈창란〉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IV. 두 작품의 존재 충위 - 결론을 대신하여

〈창란〉과 〈완월〉은 일견 흡사한 듯하면서도 미시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 이를 보임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인물형상을 보면, 峙強한 인물 대 溫順한 인물(여주인공), 輕率한 인물 대 峻固한 인물(남주인공), 개과하지 않는 인물 대 개과하는 인물(여주인공의 부친), 豪放한 인물 대 端重한 인물(여주인공의 오라비), 애정 중심적인 인물 대 효 중심적 인물(남주인공의 형제) 등으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창란〉에서는 인간의 감정에 솔직한 가운데 인물들의 결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도덕적 이념에 충실한 가운데 인물들의 결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물형상의 차이는 갈등양상의 차이로도 이어져 〈창란〉에서는 남녀간의 예절에서 벗어난 行態들이 보이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창란〉에서는 효보다는 애정을 주로 한 갈등이 전개되는데 반해 〈완월〉에서는 애정보다는 효를 주로 한 갈등이 전개되고, 〈창란〉에서는 인과구조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은데 반해 〈완월〉에서는 인과구조에 철저하다.

즉 〈창란〉은 도덕적 이념성에 긴박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하장편과는 달리, 인물들의 감정의 이끌림을 충실히 반영하는 가운데 도덕적인 의미방의 테두리를 상당히 벗어나 있다.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태들이 상당 부분 보이는 점, 효보다는 애정이 우선시되는 모습, 결함을 지닌 인물은 결함을 지닌 채로 살아감으로써 갈등이 미완의 구조로 끝나는 점, 恩怨에 반비례해서 돌아가는 世態 등 탈이념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이는 대하소설 내에서도 관념적인 도덕률에 긴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가문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집단적인 의식보다는 개개인의 폐락에 기반한 개인적인 욕망 궁정 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작품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창란〉은 일종의 '세태소설'⁷⁷⁾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인 지향보다는 일상적인 세태 자체에 충실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⁷⁸⁾

〈창란〉에서 주인공 혹은 그에 버금가는 주요 인물들이 많은 결함을 露呈하고 있는 점 또한 “일상성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최소한 이상형의 인물들 말고도 역사의 문면에 드러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봇인간들이 바야흐로 소설적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⁷⁷⁾ 여주는 세태소설의 속성과 관련되며, 實利에 따라 추세이득하며 애정의 이끌림에 따라 방황하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 또한 “世情의 盛衰에 따른 人情의 反覆”⁸⁰⁾을 주로 형상화하는 세태소설의 성향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⁸¹⁾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도덕적 이념성보다는 일상적 현실성이 중시되는 작품으로, 그 향유층이 하층으로까지 내려갔을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완월〉에서는 주요인물들이 결함을 거의 보이지 않거나 결함이 있으면 이를 고치게 된다. 주인공 혹은 그에 버금가는 인물인 경우에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규범에 충실하고, 애정보다는 효를 훨씬 더 중시하는 점, 결함을 지닌 인물은 반드시 개과하는 가운데 완결된 구조로 끝나는 점 등을 통해 도덕적 이념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완월」은 효를 위시한 집단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가문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게 되는 것이다.⁸²⁾

77) 세태소설은 주어진 시공간에서의 봇인간들의 삶의 행위 양식을 세부적으로 그리며, 그러한 행위양식의 묘사에 있어서 인간경험의 물적 토대, 즉 경제조직이나 그로 인해 빚어지는 인간의 윤리적 일탈행위라든가 사회적 터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가 어떻게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당대의 세태를 드러냄에 있어서 가치와 신념들의 갈등 및 변화에 중점을 두는 소설을 말한다. (김경수, 「세태소설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37-39면 참조)

78) 최길용(「〈창란호연록〉 연작 연구」, 『고전문학연구』 7, 1992, 334-337면)의 ‘自由婚의 受容’ 등에 관한 논의, 양민정(〈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양반가문의 애정혼고찰, 『고소설연구』 2, 1996, 261-292면)의 ‘愛情婚의 성취’ 등에 관한 논의 또한 〈창란〉이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9) 김경수, 앞글, 96면.

80) 김경수, 앞글, 5면.

81) 〈낙천동운〉처럼 주동인물이 아닌 보조인물을 통해 변화하는 세태를 예각화하여 보여주는 작품도 있으나(이상택, 「〈落天登雲〉考」,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156-168면), 〈창란〉에서는 주동인물을 통해 이런 면모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82) 물론 〈완월〉의 경우에도 반동인물 혹은 보조인물을 통해서는 이념적인 관념성을

이렇듯 〈완월〉은 도덕적 이념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가문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기존사회체재의 안정을 기하는 작품이다. 〈완월〉은 “일체의 기존적 사회체재의 當爲性과 총·효·열 등의 선협적 도덕규범은 天意 혹은 天理에서 연역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역이나 변화의 추구는 용납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⁸³⁾는 상충의 가치의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기에 품위 있는 작품으로서, 그 향유층이 최상층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흡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지향하는 가치는 극과 극에 놓인 작품이다. 도덕적 이념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작품으로서의 〈완월〉과 이러한 이념지향성에서 탈피하여 일상적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작품으로서의 〈창란〉이 대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작품은 중심사건, 주요인물의 역할, 심지어 시대배경 및 조력자 까지도 매우 흡사하기에 이 두 작품은 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의지를 가지고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 작품의 선후 관계를 밝힐 확실한 문헌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창란〉에 대한 〈완월〉의 대응일 수도 있고, 〈완월〉에 대한 〈창란〉의 대응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소재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이 차이를 드리내며 갈라지는 지점이다. 본고에서는 그 갈라지는 지점들을 피악함으로써 두 작품의 존재 층위를 보다 선명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위낙 방대한 분량이기에 본고와 같은 소논문에서 두 작품을 전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본고는 시론일 따름으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폭넓게 두 작품을 비교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다른 가정 내적 갈등양상 이외에 정치

고수하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적인 충동을 선명하게 형상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동인물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이념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또한 반동인물 등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동인물들의 영향으로 개과하여 도덕적 이념의 태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반동인물들도 별다른 개과를 보이지 않으며, 주동인물들마저 도덕적인 이념지향성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창란」과 대별되는 지점이다.

83)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관한 연구」,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이수봉 외), 1992, 51면.

적 갈등양상도 다루어야 할 것이고, 문체, 혹은 서사기법 등의 문제까지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창란〉과 〈완월〉 두 작품뿐만 아니라, 이 두 작품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옥원재합기연〉까지도 아울러 비교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 「〈說大書〉 소개」, 『문현과 해석』 14, 문현과 해석사, 2001.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 김진세, 「조선조후기소설에 나타난 세계관의 변이양상-〈완월희맹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9.
- 양영찬, 「〈창란호연록〉의 애정갈등」,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상택, 「〈落天登雲〉考」,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충에 관한 연구」,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이 수봉 외), 1992.
- 이상택, 「〈창란호연〉 연구」, 『진단학보』 75, 1993.
- 이상택, 「〈창란호연 연작〉의 텍스트 교감학」,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 연구회, 1999.
-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이해』, 새문사, 2003.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8.
-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 소설학회, 2001.
- 양민정,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양반가문의 애정흔 고찰」, 『고소설연구』 2, 1996.
- 양민정,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翁-婿, 舅-婦間 갈등과 사회적 의미」, 『한국가 문소설연구논총』 2(이수봉 외), 경인문화사, 1997.
- 정병설, 「〈완월희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최길용, 「가문소설계 장편소설의 형성과 전개」, 燕居齊신동의박사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국어국문학연구』, 1995.
- 최길용, 「〈창란호연록〉 연작 연구」, 『고전문학연구』 7, 1992.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 『고소설연구』 15, 2003.
- 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1.